



2018 자전거이용 활성화 그린 자전거 축제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영산강 일원에서 열렸다. 축제 참가자들이 은빛 역새 사이를 달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은빛 물결 사이로 은륜 힘찬 질주...가을 정취 만끽

남녀노소 500여명 45km '사랑코스'·25km '행복코스' 질주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500여명의 라이더가 영산강 자전거 길을 달렸다.

강변을 따라 무리 지어 피어난 은빛 역새는 자전거가 달리며 내는 바람결에 한들 흔들리며 만추의 매력을 발산했다.

11월의 첫 휴일인 4일, '2018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린(Green)자전거 축제'가 광주 서구 벽진동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와 (사)아시아문화,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광주본부가 주최하고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광주본부 주관 이날

행사는 광주와 전남지역 자전거 동호인을 비롯한 가족, 친구, 연인 등 500여명이 참가해 영산강변으로 뻗어난 자전거 길을 달리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비경쟁 퍼레이드로 열린 행사는 자전거 안내센터를 출발해 서창교-승촌보-흥이1번지-영산대교를 거쳐 돌아오는 45km 구간의 '사랑코스'와 승촌보 안내센터를 돌아오는 25km 거리의 '행복코스'로 진행됐다.

자전거 안내센터에서 열린 축제 개막식에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따뜻한 차와 커피 등이 이른 아침 축제

장을 찾은 라이더들을 맞이했다.

특설무대에서는 광주지역 유명 여성 4인조 밴드팀 '스탈리'가 참가자와 함께 울려퍼지며 축제의 흥을 북돋웠다.

출발선을 나선 라이더들은 기록 경신보다는 안전과 화합을 위한 행진을 펼쳤다.

특히, 전문 동호인들이 다수 참가한 사랑코스보다는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과 자전거 경험이 적은 동호인들이 많이 참가한 행복코스에 대한 배려가 빛났다.

승촌보 앞 오르막길 구간에서는 안전한 경사로로 우회해 이동하며 사고에 대비하고, 간혹 열기왕성한 청소년 참가자들의 대열 이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도 출발 전 당부하는 등 안전사

고에 철저히 대비했다.

문세훈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장은 "속도감을 느끼고 싶어 대열을 벗어나 반대 차로로 달리다 충돌할 수도 있고 빠른 속력에 페달을 놓쳐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5회째는 맞는 '그린 자전거 축제'는 넉넉한 코스로 광주·전남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빠질 수 없는 가을 자전거 행사로 소문이 났다.

자전거를 잘 알지 못해도 쉽게 참가할 수 있어 매년 대회에 참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하늘에서 내려다 본 그린자전거 축제장.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40년 지기” 멀리 갔지만 계속 달려야죠”

‘대회 개근상’ 이재용 응

나이를 잊은 질주에 그린자전거축제가 빛났다.

이재용(83·동림동)옹이 1년의 기다림 끝에 대회 다섯 번째 질주를 끝냈다.

매일 자전거로 승촌보를 오가며 건강을 챙기고 있는 이옹은 지난 2014년을 시작으로 매년 대회 출발선에 서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이옹은 “얼마나 풍경이 좋은지 모른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기분이 좋다.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왔다”며 완주 소감을 밝혔다.

이옹은 대회 5번째 질주에 만족감을 보였지만, 함께 해왔던 40년 지기 친구가 곁에 없으며 잠시 쓸쓸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옹은 “친구가 저 멀리 가버렸다.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혼자 달렸다”며 떠나간 벗을 추억했다.

그래도 대회에 함께한 참가자들 덕분에 즐겁게 달릴 수 있었다는 이옹은 내년 대회를 기약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옹은 “(그린자전거축제가) 10월 말,



11월 초에 열리는데 1년을 기다리는 행사다. 자연을 달리면서 자연과 대화를 나누고, 시간 속에서 같이 흘러가는 기분이다”며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대회를 기약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엄마·고모·형이랑 씩씩...아빠는 응원

그린자전거 축제는 가족들이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무대이기도 했다.

소촌동에서 온 김동성(7)·김승달(10) 군도 가족의 응원 속에 ‘특별한 추억’을 말했다.

엄마·고모와 25km 행복코스에 출전한 ‘막내’ 김동성 군은 “다리가 아팠어요”라면서도 “엄마와 시합을 했다. 재미있었다”고 웃었다.

‘형’ 김승달 군은 고모부와 함께 사랑코스 45km를 달렸다.

김군은 “아빠와 멀리 달려본 경험이 있어서 힘들지 않았다. 상쾌하기도 하고 신나는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막내와 함께 한 엄마 우주희(33)씨는 “주말을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 아이가 앞에서 달리는 것을 보면서 흐뭇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조카들과 나란히 달린 김정은(43·여)·조성규(53) 부부도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따뜻한 추억을 쌓았다.

이들은 “조카에게 오래 기억될 만한 추



억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며 “자전거를 타면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처음 대회에 참가했는데 좋은 시간이 됐다. 내년에도 꼭 참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아빠 김강우(39)씨는 일 때문에 레이스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결승선을 통과한 아이들을 반기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다.

김씨는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시작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가족이 함께해서 좋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초등 친구들과 또 왔어요...올해 동생도 함께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이다 보니 2018 그린자전거축제장에는 유독 어린 라이더들이 많이 보였다.

부모를 따라나선 이들도 있었지만 스스로 참가 신청을 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참가자들도 많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온 오규민(하남중 1), 서찬서(산정중 1), 박기상·이근휴(이상 정광고 1), 이태형(여용초 1)도 마찬가지다.

25km 행복코스에 참가한 이들은 승촌보까지 성인을 못지않은 속도로 완주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하루 대부분을 자전거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 이들의 취미는 ‘자전거 타기’다.

평소 학교나 학원에 다닐 때도, 축구나 농구 등을 하기 위해 운동장을 찾을 때도 이들은 자전거를 이용한다.

승촌보까지 달리기도 하고 광주천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길로 충장로나 금남로를

가기도 한다. 또 시간이 허락되면 남구 포충사까지 다녀온다.

가끔 자전거 타느라 해가 진 후에 집에 들어가 부모님께 혼나기도 하지만 이들의 자전거 사랑은 한결같다. 특히 이근휴 학생은 2015년 대회부터 현재까지 4회째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프로참석러’다.

그는 “지난 대회까지는 친구들과만 왔는데 이번에는 친동생도 데리고 왔다. 동생, 친구들과 함께 달리면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바람을 맞는 게 기분이 좋다. 체력 또한 좋아져 건강해지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축제

기간: 2018. 9. 1(토) ~ 11. 30(금)

<p>축제 1 객실 가을 패키지</p> <p>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 패키지 60% DC</p>	<p>축제 2 1층 레스토랑 ‘테파니’ 스파게티 & 스테이크 축제</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커피</td><td style="text-align: right;">3,000원</td></tr> <tr><td>스파게티</td><td style="text-align: right;">13,000 ~ 16,000원</td></tr> <tr><td>스파게티 코스 (스프+샐러드+스파게티+커피)</td><td style="text-align: right;">22,000원</td></tr> <tr><td>돈가스 코스 (햄+스프+샐러드+돈가스+디저트+커피)</td><td style="text-align: right;">18,000원</td></tr> <tr><td>안심스테이크 코스 (햄+전채요리+스프+샐러드+스테이크+디저트+커피)</td><td style="text-align: right;">50,000원</td></tr> </table>	커피	3,000원	스파게티	13,000 ~ 16,000원	스파게티 코스 (스프+샐러드+스파게티+커피)	22,000원	돈가스 코스 (햄+스프+샐러드+돈가스+디저트+커피)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햄+전채요리+스프+샐러드+스테이크+디저트+커피)	50,000원	<p>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p> <p>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p>
커피	3,000원											
스파게티	13,000 ~ 16,000원											
스파게티 코스 (스프+샐러드+스파게티+커피)	22,000원											
돈가스 코스 (햄+스프+샐러드+돈가스+디저트+커피)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햄+전채요리+스프+샐러드+스테이크+디저트+커피)	50,000원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